



전주대, '나의 미래직업 만들기 챌린지 교육'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8일 스타센터 101호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나의 미래직업 만들기 챌린지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미래직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굴한 신직업 정보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취업 경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미래직업 카드를 활용한 나의 직업 찾기 △미래 사회문제와 전공·희망분야를 연결한 직업 탐색 △미래직업 현실화 액션 러닝 실습 등으로 구성,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한 신직업 아이디어를 브랜드화하는 활동에 큰 호응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동충동에 물품 나눔 실천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8일, 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로부터 관내 결식 우려 대상자들을 위해 약 100만원 상당의 밀가루·국수세트 50개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와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강상남 연합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고자 후원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상주시 공무직 노조,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탁

전국지체단체 공무직본부 상주시지부 회원 50명이 지난 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장현석 상주시 지부장은 "무주 발전과 군민 행복을 바라는 상주시 공무직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라며 "무주군 공무직 노조와 교차 기부하게 된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물론 영호남 화합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부는 무주군 공무직노조 회원들(50명)이 지난달 21일 상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위해 5백만 원을 기탁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신윤식씨, 무주군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 주민 신윤식 씨(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장)가 8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2022년부터 해마다 1백만 원씩을 기탁하며 무주군 인재육성에 이바지해 온 신윤식 씨는 "무주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동기 부여가 되는 학습 분위기 속에서 꿈을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며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회복지 행정실무 마스터 과정 개강식

남원 여성새일센터, 미취업 여성 20명 대상... 노인복지의 이해 등 현장 실무능력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구인 구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8일 4주제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행정실무 마스터 과정(이하 마스터 과정) 개강식을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서 가졌다.

마스터 과정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여성들을 사회복지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고자 설계. 이번 과정은 4월 8일~6월 28일까지 총 20시간 진행되며,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와 전문 교수 강사진으로 장기요양 기관 별 실무교육, 노인복지의 이해, 프로그램 실습 행정실무 컴퓨터교육, 현장 실습 등 전문교육 제공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생들은 사회복지 행정실무 마스터 과정 수료 후 전문가로서 요양기관, 장애인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변호사, 정읍 소성면 산불 피해주민에 500만원 기탁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 박지원 변호사가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500만원을 기탁하며, 재난 속 운정을 전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8일 박 변호사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책임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22년 전북 아너소사이어티의 82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1억원을 완납한 고액기부자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한국형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부자 네트워크다. 이처럼 박 변호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꾸준한 기부를 실천하며 사회적 귀감이 되어 왔다.

법조인으로서뿐 아니라 체육인으로서도 활동 중인 그는 전주시체육회회장으로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사랑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의 일환으로, 재난으로 인해 상처 입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따뜻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이웃을 향한 손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기부를 발간 삼아 이재민 지원에 더욱 박자를 가할 방침이다. 성금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장 공감 소통 실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한숙경 교육장은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지역을 살리는 고창교육을 위해 지난 4월 7일 고창남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전 유·초·중·고등학교 41개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안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창 교육의 부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숙경 교육장의 현장 중심 행보는 지역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내 전 유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에 앞서 한숙경 교육장은 관내 이동 복지시설인 요원원과 행복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태인고서 자살 예방 캠페인 펼쳐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53회 보건의 날을 맞아 신태인고등학교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며 생명존중의 의미를 나눴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의 날,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7일 1교시 수업시간에 맞춰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109)'와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이 곳곳에 배치돼 시각적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였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 부스에서는 정신건강 자가검진을 통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 연찬회

남원시는 최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장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역 내 복지 현안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역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 방향 및 주요 내용 신규사업 설명, 사례관리 실천 우수사례발표, 읍면동 복지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왕정동 맞춤형복지 팀장(김영옥)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중요성과 민관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는 과정도 소개되어 큰 공감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주은행·부산은행 직원·가족, 전북 1박2일 여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은 지난 5일과 6일 1박 2일 일정으로 각 지방은행 직원 및 가족들이 전 북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은행들의 전북 방문은 올해부터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원호 위원장이 전북 방문 유치를 적극 나선 결과다.

먼저 제주은행은 2025년 가족테마 여행'을 통해 185명의 직원 및 가족들이 전북을 찾았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제주지역 특성 상 평소 경험하기 힘든 곳들을 방문해 보고자 이번에 전북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도 '함께해孝-전하지 못한 이야기' 행사를 전북 지역 일대에서 진행했다. 총 80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전주한옥마을 내 숙박 및 관광을 비롯해 남원 관광투어 등을 찾았다.

특히 전북은 오래된 고택과 한옥이 많아 영화와 드라마 배경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드라마 '장년'과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였던 전주 한옥마을 내 '학인당'에서 관소리 공연을 관람하며 소리의 고장 전주의 풍류를 즐겼다.

/01만호 기자



군산부설초,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참가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6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는 군산부설초 교육공동체가 두 번째로 참가하는 마라톤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75명이 참여해 초종교 최대 인원(8km)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회에 참가한 6학년 학생은 "작년에 비해 기록을 6분 이상 단축해서 정말 뿌듯하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동충동, 다문화 부부교육·간담회 개최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시 가족센터와 최근 관내 30여명의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소통을 위한 부부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 제95회 춘향제 홍보와 대동갈매이 참여 독려를 도모했고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부교육을 통해 소통법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원예(꽃바구니 만들기)체험 활동도 같이 진행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며 완성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지평선농부들, 1000만원 상당 흑삼담은 생강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지평선농부들(대표 하지혜)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평선농부들은 1,000만 원 상당의 '흑삼담은 생강' 7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평선농부들은 김제 홍보관에서 직접 생강을 재배하며, 마을 농가의 생강을 수매, 가공해 지역주민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역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하지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생강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 환절기도 가볍히 이겨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